

GRACE 선교소식

2025년 9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18명 (자체파송 78%)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한국에서 여러 교회 부흥회와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눈병으로 불편함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GMI 선교사 훈련원 15기생들이 졸업하여 모두 파송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열린 그레이스 프리덤 훈련에 전원이 참석하였고, 이번 주 주일에는 마지막 강의와 안수기도를 받은 후 졸업하게 됩니다. 저는 월요일에 졸업생들과 파송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금요일성령집회 때에는 졸업 간증을 나누며 함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파송식도 함께 거행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동안 GMI 선교사 훈련

원 졸업생들을 통해 우리 GMI 선교가 더욱 활력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졸업생들 역시 이미 선교 경험이 풍부하고 헌신된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하반기 성도 양육 과정이 개강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와 “GMI 선교 정책”에 대해, 수요일에는 “지도자 자질론”을 강의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목요일에는 그동안 은퇴식을 하지 못한 GMI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은퇴 예배를 드리고, 공로패를 드리며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GMI에서는 나이로 형식적인 은퇴가 있지만, 건강이 허락되는 한 사역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지를 잘 이양하신 분들은 팀 사역을 통해 미리 준비가 되었기에 은퇴 후에도 사역의 열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은퇴 예배에는 GMI 1세대 선교사님들과 이제 막 훈련원을 졸업하고 파송받는 15기생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마치 은퇴 선교사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MI 선교사 훈련원 파송식: 9/28
- 목사 안수식: 9/29
- 목사부흥의 밤: 9/30
- 주말 수양회: 10/11
- 중보기도용사의 밤 및 목사부흥의 밤: 10/28
- 할렐루야 나이트: 10/31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님들께서 바톤을 이어주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GMI 선교 사역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페루

최갑순 / 정미희 선교사

페루 신학교 33차 소집을 마치며 신학생들의 간증을 소개 드리며 감사를 전합니다. 참가자들의 나눔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며 점점 부족한 선교사에게도 기도에 기도를 인도함 받게 하십니다.

“한동안 저는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은 평온했고, 사역도 계속되고 있었으며,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존재를 온전

히 채우고, 저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세미나 기회에 은혜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 가족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은 때로 외롭고 고된 여정이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분을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기 시작하기를 기도하는 기쁨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그분의 때에 모



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저는 그 약속을 붙들고, 청년신학생으로서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리고 비전에 리더십을 얻고 나아갑니다.”

졸업생 빈민학교 벽 미장공사

우리 페루신학교에는 교회와 학교 등 빈민을 대상으로 한 사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을 조금씩 또는 감동이 임하는 축복의 원순후원 기도가 있는데 이번달은 전에도 판자를 뜯고 공사를 지원한 빈민지역 분교에 미장 마감을 하지 않은 거친 벽으로 아이들이 칠과상을 입는 것에 인도함을 받아 벽에 미장 회벽 공사를 지원하여 마우델리나 분교장(6기 졸업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4기 졸업생이 섬기는 빈민지역 어린이후원교회 벽체 및 지붕공사를 지원하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뉴비전스쿨 어린이 캠프

7월 28일, 뉴비전스쿨에서 어린이 캠프가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교실에서 서로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스낵타임에는 함께 간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팀 안에는 뉴비전스쿨 아이들과 또래가 되는 한국 학생들도 있었기에,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단기팀이 준비해 온 공연이 이어졌고, 뉴비전스쿨 학생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이어서 게임과 미술 활동 등을 함께하며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영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아이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짧은 하루였지만, 아이들이 찬양과 말씀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며 교사들은 교육 사역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지아판다 교회 헌당예배

8월 3일에는 은지아판다 교회 헌당예배가 있었습니다. 은지아판다 교회는 그동안 양철 지붕과 천막 벽으로 된 작은 예배당에서 모였습니다. 양철 지붕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기를 더해 예배당 안을 찜통처럼 만들었고,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은 금세 젖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모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눈에는 불편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보였습니다. 건축



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재정 부족으로 공사는 자주 멈추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돈이 모이면 벽돌을 사고 공사를 조금 진행하다가, 자금이 떨어지면 다시 멈추기를 반복합니다. 은지아판다 교회 역시 성도들의 헌신 속에 조금씩 벽돌이 쌓여갔지만 완공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한국 교회의 후원이 이어져 마침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헌당예배 날, 성도들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좁고 불편한 공간에서 벗어나 넓고 안전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날은 한국 단기팀도 함께 예배드리며 국경과 문화를 넘어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와 헌신의 고백이 어우러져 하나님께 올려진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뉴비전스쿨 두 번째 졸업식

8월 28일에는 뉴비전스쿨의 두 번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뉴비전스쿨은 선교센터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가라투 지역에서 유일한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는 학교는, 아이들에게 신앙과 지식을 함께 심어주는 귀한 자리입니다. 졸

업식은 전 학년 학생들의 공연과 함께, 졸업생 가족, 학부모, 지역 군수, 이장, 주변 학교 교장들까지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큰 행사였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는 일주일 전부터 센터 안팎을 청소하며 준비했고, 수업이 끝난 뒤 저녁마다 교사·직원·학생들이 남아 밤늦도록 졸업식장을 꾸미고, 식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학생들의 합창, 전통 춤과 연극, 졸업생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축하하며, 기독교 학교가 지역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무슬림 유지들뿐 아니라 학부모들 중에도 무슬림들이 함께 참여하여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뉴비전스쿨은 모든 학생이 기독교 교육에 동의해야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슬림 학부모들 역시 기독교적 가치와 교육 방식에 동의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졸업식이 단순한 학교 행사를 넘어, 복음의 영향력이 지역 사회 안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9월 소식

딸 이음이의 수술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수술 후 토요일 저녁까지 열이 있었지만 완전히 내린 걸 확인하고 주일 오후에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목보호대를 착용하며 회복 중이고, 10월 1일에 재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회복이 순조롭고 목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이음이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 9개월간 떨어져 있던 가족과 교회를 만나는 만남 속에서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I국

남OO 선교사

7월 초에 개강을 하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7월 말에 외부 강사님들과 영성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삶이 달라진 학생들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니

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월은 디wali 등 축제와 휴일이 많은 달입니다. 사방 곳곳에서 뿌자(힌두예배)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I국에서 찾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I국 땅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또한 마지막 때에 순전한 믿음과 거룩함



으로 주님의 군사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가 되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로 바쁜 7, 8월을 보내고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3학기, 올해의 마지막 학기입니다. 지난 7월 말에 모든 클래스가 학교소풍을 다녀오는 것으로 2학기를 마무리하였고 8월 초 방학 중에는 VBS(여름성경학교)가 3일간 열렸습니다. LA 은혜한인교회 EM 교육부 팀에서 주관한 두 번째 성경학교였습니다. 작년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 매일 300여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자'는 주제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올해는 킬리피에서 3일, 팔레(Kwale)에서 3일 VBS를 진행하였는데, 팔레에 있는 GMI 교회주일학교 연합으로 매일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뛰어 버스가 들어오는 길목까지 나와 모두 흔들며 환영해주어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광경을 상상하며 황송한 웰커밍을 받았습니다. VBS는 스테이션별로 돌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팔레는 교회 앞 잔디밭, 돌밭이 스테이션이 되어 거기에서 달리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케냐의 다음 세대 귀한 어린 영혼들이 어려운 환경보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9월 말에 있는 전국 학력고사(3~8학년)와 10월 말 6학년 전국고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교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주세요.

7월에는 은혜한인교회 의료선교팀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팔레와 마라파 두 지역에서 하루에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4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하고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방팀도 있어 침을 맞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경과 돋보기를 많이 가져오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골에는 아직도 전기가 없는 집들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어두운데서 숙제를 하거나 어렵게 생활을 하며, 적도 부근이라 햇빛이 워낙 뜨거운데 피약벌에서 평생 농사를 짓다 보니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안약 한번 넣어 보지 못한 사람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경이나 돋보기를 살 수도 없는 환경인데 안경을 쓰고 잘 보인다고 좋아하는 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감사했습니다. 지난 5월 신학교 졸업식을 하고 7월에는 18기 26명의 신입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신학교에 온 만큼 2년 동안 잘 배워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교 마지막 강의와 7월 마지막 주에 열린 GMI 목회자 세미나는 한국의 PBWM(Paul Bible World Mission) 여섯 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중학교 건축을 맡아서 했던 건축책임자가 신실한 성도인데 작년에 작년에 골수암 판정을 받고 집에서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뼈에 가죽만 남은 상태로 몸의 모든 살과 근육이 빠져 걷지도 못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컨디션이 좋아지고, 올해 초에 목발을 사주어 다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목사님들께 기도를 받고 목발을 던져 버리고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교회 건축의 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일년내내 교회를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하나씩 교회를 건축해왔고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셔서 현재까지 5개 교회를 짓고, 현재 여섯 번째 교회 건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어서 두군데 더 건축될 예정입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늘 느끼는 것이지만 주일에 교회를 갈 때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리는 너무나 적막해서 마치 사람들이 사라져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기반이 된 도시이다 보니 주일은 특히 평소 애 보던 생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서 더욱더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11시 반경이 되는데 그나마 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카페나 영화관에서 사람들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는 가족을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슈퍼가 있는데 어느 날 한 소년이 히잡을 쓴 자신의 누나와 집에서 만든 음료수를 슈퍼 입구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다 사고 집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소년이 저를 부르더니 레몬 주스를 따라 주면서 돈은 안 줘도 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네덜란드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돈을 부친다고 하고 저에게 마침내 종교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고 그 소년은 이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예수님은 선지자 중의 한 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고 구세주라고 하자 그 단어를 처음 들었는지 이해를 못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누나는 제가 설명하는 동안 저를 비웃는 소

리를 들릴 듯 말 듯 했고 11살된 동생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에 그 소년과 누나가 본능적으로 완강한 태도를 나타냈고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서로 간에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은 뒤에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선교사의 입에서 복음의 씨앗은 뿌렸다는 것이며 어쩌면 평생 들을 수 없는 복음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 역할을 한 사람이 저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탄자니아 잔지바르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잔지바르는 지난 7-8월이 일 년 중 가장 시원한 계절이어서 저희는 정말 감사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지금 잔지바르는 교육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정부시험기간을 맞이하여 7학년과 4학년 아이들이 지난 1년간 공부했던 실력을 평가받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0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곳곳에서 유세하는 차량과 모습들을 봅니다. 선거때마다 혼란과 사건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데 평화롭게 선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에버그린 학교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는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이지만,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기독교 학교와 성경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희 사역을 통해 잔지바르 땅에 복음의 소망을 심어 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가시험을 대비해서 학습하며 공부하던 7학년 학생들이 9월 15일부터 시험이 시작되어 9월 18일까지 4일간 시험에 임하고 있으며, 4학년 학생들은 9월 22-24일까지 3일간 시험을 봅니다. 7학년 학생들은 시험 결과에 따라 중학교 가는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위협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9년 동안, 반드시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곳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기관의 지도자로 세



워 주셔서 현재 이슬람 종교가 뿌리 내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성령충만함과 은혜를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학교

9월 12일에 생일잔치를 하였는데 난생 처음 꼬깔모자를 쓰고 케익 앞에서 개인사진을 찍을 때 아이들이 흥분되고 들떠서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덩달아서 기쁨이 배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추억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귀하신 동역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과 사역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버그린 학교 건축

슬라브 공사를 하는 도중 시멘트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들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난공사였던 슬라브 공사를 마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후 공사는 원래 1층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산한 후에 2층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도중에 2층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2층에 벽돌쌓기 공사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은 2층에 빔작업이 끝났고 그 위에 벽돌을 3단을 쌓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지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주 전에는 작업현장에 있는 자재들을 정리하다가 발바닥이 못에 찢리는 사고를 당하여 고통을 겪었는데 다행히 더 악화되지 않고 이제 다 나아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며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로 빨리 나올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공사들도 순차적 추진되어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이 학교가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오는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어, 이 이슬람땅 잔지바르를 복음으로 덮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잔지바르 안디옥 성경대학

복음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복음의 용사가 되고자 하는 제10기 성경대학 학생 6명이 4번째 텀을 마치고, 지금은 마지막 5텀(그리스도와 연결, 섬기기 위한 삶)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성경대 학생들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는 영적 전쟁이 큰 것을 느낍니다.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헌신된 사역자로 쓰임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요청

오효숙 선교사가 지난 2023년에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았을 때 안과 의사선생님이 백내장이 있다고 수술하라고 권유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보류하고 출국하였으나 선교지에서 2년간 지내는 동안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더 늦어지기 전에 치료받아야 되겠기에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진찰을 받고 다음 주 9월 22-23일에 세종에 있는 서울 삼성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또 잔지바르에 있는 동안 꼬리뼈가 계속 아파서 약을 먹었으나 호전이 안되어 고통을 겪었는데 원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완전하게 치료가 잘 끝나고 출국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

신동덕 / 신미희 선교사

Bible College Europe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생각나지는 않지만 드디어 페르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난민들을 위한 성경대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사님부부가 영국을 다녀오며 저에게 Bible College of Wales 를 소개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 진행을 더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그 집사님부부는 그리스 이사를 구성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Bible College Europe의 시작은 페르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아프간과 이란인들이 자국을 떠나 난민생활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듣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작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Online을 접목시킨 On-the-Go 성경 대학입니다. Bible College Europe 이름 가운데 “College”란 교육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목자가 되도록 가르치고자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일종, 하나님의 성인 대학교입니다.

1기(Quarterly Semester: 12주)를 2025년 4월 25일 금요일날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9:30 시작으로 Prayer 중보기도, Exercise, Bible Study: 성경통독 누가복음과 해석, The Red Sea Rules (Exodus 14), Practical: Encounter, Secret, Art Therapy, & Al Massira. 오후 6:30까지 하루에 8시간, 처음에는 11명으로 시작했지만 총 12주 96시간을 마친 학생은 6명이나 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좋은 성과였습니다. 참여한 교수는 신미희선교사, Jeff Simon 선교사, Samantha Wells 선교사, 그리고 신동덕 선교사, 통역 Ben, Sajja 등이 참여했습니다.

작은 목자

성경대학 시작과 함께 지금 2학기 중간을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계획은 우리가 세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난민으로 정착역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착역’이란 난민의 의지

가 아닌 주어진 여러 환경이 난민을 정착 시켜주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에 있는 난민이 독일로 가고 싶다고해서 독일로 갈 수는 있지만 몇 년 후 그리스로 다시 추방될 수도 있으며, 독일로 가고 싶었지만 막상 떠날 때 그 나라의 현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밀수업자가 스위스로 내몰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들의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정착역이 어디가 되었던지 Bible College 연단을 통해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작은 목자가 되어 “the sower and the reaper”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되어(요 4:36)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동안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성경대학을 통해 작은 목자들이 나오고 이 작은 목자들이 유럽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과 함께 주님안에서 영생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Bible College Quarterly Magazine

이제 먼 훗날에서 오늘을 보기위해 Bible College Europe 학기 매거진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보기 원함이기도 합니다. 이번 2학기, 신미희선교사가 “요한복음”을 가르치면서 9장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라는 대목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질병이나 저주,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나 조상의 잘못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침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혹시 학생이나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경우가 있으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라고 말하자 학생 중 한 명이 독일로 갔다가 휴가차 저희 교회를 방문한 Ali* 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Ali 라는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 제가 전에 사용했더라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프간 청년 Ali

몇 주 전 Ali라는 멀쩡한 아프간 청년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주일참석란에 등록을 하며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성경대학 학생의 친구이기도 한 이 청년은 독일로 넘어가기 전 그리스에 살 때, 몇 해 동안 교회



를 4-5군데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 살 때, 너무나 배고파서 여러 마켓을 돌며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 음식을 훔쳐 먹고 또한, 독일로 가기 위한 인터뷰 담당자와 변호사에게 많은 거짓말을 해서 독일로 결국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이 정착역에 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어려움이 많아 주님을 찾게 되었고 결국엔 주님을 만나 믿음이 생기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리스에 살 때 여러 마켓에서 많은 것을 훔쳐 먹은 것과 변호사와 인터뷰 담당자에게 많은 거짓말을 해서 독일에 가게 된 것을 떠올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간 청년은 주님께 그리스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마켓매니저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더니, “왜 지금에서야 이야기 하느냐?”고 매니저가 물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그렇게 한 짓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당신들에게 잘못된 것을 고백한다며 빛진 것이 있으면 갚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그 청년을 인터뷰했던 담당자를 끝까지 수소문해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다는 아프간 청년의 이야기는 선교사인 나를 부끄럽게 했다. 성경 어딘가에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랐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라는 대목입니다.

혹시 내가 전에는 세리였는데 지금은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매 학기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Bible College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어 저들이 어느 나라에 정착하던 하나님 말씀을 씨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한 난민들의 마음 밭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자들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간증문 필리핀 GTD

최봉수 집사 / 안산 빛나교회

선교를 다녀온 후 꿈속에서 은혜한인교회 한 기흥 목사님의 예배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뽀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 암소에 대해 설교하셨고, 밤새도록 관련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꿈속에서 찬양을 불렀을까요.

선교를 결정한 후, 제 마음에는 아담이 선악과 앞에 섰을 때처럼 어둠의 유혹과 인간적인 계산 속에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시선이 머무는 곳, 필리핀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크고 좋은 것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선교 경험이 있던 저는 “전에도 그랬잖아. 선교 다녀온 후로는 어땠는데?”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예전에 선교 후에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하

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들, 선교 후 느껴지는 감정을,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험되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는 선택도 의무도 아니라 반드시 행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엠마오에서 섬김 받은 자로서 빛진 자의 마음을 되새기며, 필리핀 GTD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킨팀에서 식탁 세팅 중에 순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캔디를 향한 저의 간절함이 느껴졌으며, 작은 몸짓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마음에 물컵과 수저 하나 하나를 식탁에 정리할 때 온 정성을 다해 가장 예쁘고 가장 편하게 캔디들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에 남겨진 큰 일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벤트에서 캔디들의 간증과 결단,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큼은 섬기는 자(팀 멤버)와 섬김을 받는 자(캔디) 모두가 가슴 벅찬 행복감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

혜가 느껴졌습니다. 나라와 인종에 상관없이 TD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도 다시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3일째 되는 날에는 결단과 의지에 찬 캔디들의 눈빛을 보며 다음 선교지를 꿈꾸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되새겨지며, 빛진 자의 심정으로 비록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겠다고, 섬기겠다고 결단해 봅니다. 작은 물질과 며칠간의 시간을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넘치도록 은혜와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 장로님 이하 임원진 모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모든 분들 캔디들을 향한 정성은 정말 섬세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습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고자 애쓰시는 열정은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마치 뽀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 암송아지처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던 “저의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증문 필리핀 GTD

김미정 집사 / 안산 빛나교회

여호와 이레! 늘 먼저 예비하시고 역사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준비하심은 GTD에 대한 주보 안내를 보자마자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선교 기간이 방학기간에 딱 맞는 것과 우리 부부가 첫 선교를 갈 때 함께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딱 맞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기쁨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GTD를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출발하는 날까지 저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괴로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학교의 학급수가 증가하여 어느 해 보다 바빴습니다. 더불어 교회에서 연락오는 항공권 티켓팅, 팀 파트 분류 등등 GTD 단체 문자는 나의 마음에 기쁨보다는 바쁨에 바쁨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따갈로그어 찬양과 캔디데이트들의 기도 명단, 단기선교 모임과 교육, 금요일마다 GTD 사전모임 참석 그리고 감기로 인한 목 통증과 역류성 인후염 등으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과 모임 그리고 금요 성령터치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학교의 바쁜 일정도 방학식 날 근무 조정도 GTD의 짐 준비도 더더욱 감사함은 몸 상태도 다 가능하게 하셔서 선교를 무사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두번째 준비하심은 큰 은혜였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아침 수업 시작 1시간 전 여러가지 교육활동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른 글씨 쓰기였습니다. GTD 선교에서 저의 담당은 데코팀에서 캔디데이트들의 이름을 써서 이름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5개월 동안 매일 손글씨를 쓰고 있지 않았다면 선뜻 나서기 힘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쁘고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매일 손글씨로 준비하게 하시고 캔디데이트들의 이름을 한분 한분 쓰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제대로 못한 저의 부족함을 잘 아시고 알파벳 한글자 한글자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GTD에서 데코로 섬기는 팀멤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한분 한분 애쓰시는 마음에 감동하며 섬김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선교지를 순회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 제 눈에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은 캔디데이트들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며 잘 행하지 못하는 제 신앙이 부끄러웠고 제 마음의 열정이 살아나며 더 성장해야지라는 회개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GTD를 통해 태초에도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저를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조금 더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하십니다.

GTD선교를 마치고 필리핀에서 오는 날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방바닥에 드러눕어 있어야 할 정도로 열과 기침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선교 후 한 달,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회복은 더디고 열은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라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미리 응답받으며 또 어느 곳에 저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심으로 늘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으로 행하고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겠습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1. 이음이의 회복이 순조롭고 목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음이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2.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모든 일정과 만남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3. 지난 어린이 캠프와 은지아 판다 교회 헌당예배를 통해 흘러주신 은혜가 아이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지역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4. 뉴비전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믿음 안에서 담대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 양육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1. 주님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과 사역이 되도록
2. 신학교 17-18기 학생들의 학업과 사역을 위하여
3. 계속되는 교회건축을 축복하여 주시도록
4. 킬리피 최고의 크리스천 명문학교로 세워지고 쓰임받도록
5. 내년에 중학교에 필요한 차량을 주시도록
6.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페루 최갑순 / 정미희 선교사

1. 3개 신학교 운영 축이 더욱 활성화되어 신학생들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재정과 강사진을 위해 (페루신학교 청년중신학교 여성지도자중신학교)
2. Moving신학교(지방순회 신학교) 사역을 위한 차량 구입을 위하여 소요재정이 준비되어 나머지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탄자니아 잔지바르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1. 거짓 종교가 삶과 신념이 되어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잔지바 이슬람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 주세요.
2. 제 10기 성경대학 6명 학생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남은 기간동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3. 에버그린 3, 4, 7학년 학생들이 정부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원하는 중학교에 장학금 받고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4. 에버그린학교 건축이 완공되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속히 이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생명수 처럼 흘러 나오는 요새와 산성같은 학교가 되게 해 주세요.
5.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영육에 강건함과, 자녀들이 말씀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6. 에버그린과 노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구원 받고, 아이들이 꿈과 비전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7. 오효숙선교사 백내장 수술과 자가면역성 간염, 꼬리뼈 통증을 치료하여 주세요.
8. 우리 부부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일본 공영환 / 공은자 선교사

1. 김형렬선교사(67세)의 여생에 주님의 치료하심과 평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2. 사모님 권병희목사님의 강건함과 감당하는 사역에 열매를 주소서.
3. 비와코 사랑의 교회, 쓰루가 사랑의 교회, 후쿠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4. 각 교회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고 성장하여 전도와 재생산 하는 제자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5. 매주 타케노에서 후쿠이, 비와코까지 오고가는 여정(왕복500-700키로)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6. 타케노지역의 불신자들을 향한 오이코스 전도와 교회개척을 위해서
7. 은자사모와 요한의 안전과 평강을 위하여
8. 10월 26일부터 쓰루가교회의 예배당을 3층에서 2층으로 옮기는 공사를 위하여(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인 분들이 3층까지 오르내리는 일이 힘겨운 상태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모금을 위해 9월 22-25일 한국을 방문해서 설명회와 선교보를 통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소서.
9. 공영환선교사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
10. 9월 15일 비와코교회 헌장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아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미국 남OO 선교사

1. 성령충만과 영육강건함을 위하여
2. 신학교 운영하시는 선생님 가정과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 확장 되도록
3. 신학생들의 성령충만과 학업에 필요한 지혜 주시기를
4. 2026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비전을 가지고 행할 계획을 세우도록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쓰나오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쓰나오 은혜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속 사람이 변화하여 믿음 안에 자라도록
3. 사역자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4. 찢으란이 직장문제로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과 신앙에 있어서 주님안에서 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5.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6. 오르난의 타작 마당처럼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도록
7. 새로운 마을에서 예배를 시작을 계획하였으나 여러 일들로 인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1.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2.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시대를 분별하고 강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3.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4. 필요한 생활비와 사역비가 넉넉히 채워지도록
5. 세 자녀 드보라 다니엘 샤론이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콜롬비아 목회자 AFA 5기 (10/4-10/11)
S/L: 한기홍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T/M: 10/2
- 인도개척선교(인도 신학생들과 함께) (10/24-11/1)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 은혜동산(통일민 TD) 17기 (10/24-11/2)
S/L: 한기홍 목사, 렉터: 장해규 장로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 태국 TD2기 (10/31-11/8)

S/L: 송종호 목사
렉터: 정명섭 집사
문의: 안규범 집사 (714-328-4820)

• GMI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 (2/23-2/26)

문의: 이희경 집사 (714-337-3091)
O/T: 10/1(수) 7pm, 새가족반

2. 의료선교교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11:15 AM
문의: 의료선교교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